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7. 29.(월) 11:20  
(지 면) 2024. 7. 30.(화) 조간

## 행정안전부 장관,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땅밀림 현장 점검

-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(월)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토함산 일대 땅밀림 현장을 점검했다.
-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원전은 현재 정부가 집중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‘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’의 4대 분야\* 중 하나이며, 토함산 땅밀림 현장은 최근 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있는 곳이다.
  - \* 4대 분야(산단 지하 매설물, 원전·댐·통신망, 전기차 지하충전소 안전관리, 전지 화재 등), 민·관 합동 현장점검 추진,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('24.7월~)
- 이상민 장관은 먼저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 운영 현황과 발전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, 드론 탐지 등 감시체계를 직접 살폈다.
-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해 국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, 현장 근무자들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했다.
- 이어서 이 장관은 토함산 땅밀림 현장을 찾아 경주시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, 대피계획 등 주민보호 대책을 점검했다.
- 이상민 장관은 “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, 비상시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호 (044-205-51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순한 (044-205-5156)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환경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박현용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조용수 (044-205-6176)